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 분류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김 민 선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을 조합할 때 어떤 자연 발생적인 군집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집단들이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총 17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은 수행 관련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의 두 차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집단에 비해 감정적 반응, 정서적 단절,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낮은 반면 사회적 효능감은 낮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행완벽-회피애착 집단은 수행 관련 완벽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피애착 수준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집단 중 사회적 효능감이 가장 낮고 정서적 단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자아존중감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완벽-안정애착 집단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 수준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 효능감이 높고, 자아존중감 수준은 가장 높으며, 정서중심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인애착, 군집분석, 심리적 특성, 정서적 고통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생애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지/정서적 스키마는 이후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과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의 높은 기준과 비판적 평가를 경험하고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할 뿐 아니라 타인들이 자신에게 완벽한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고통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hang & Rand, 2000; 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5). 한편, 이러한 인지/정서적 스키마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학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Heppner, & Mallinckrodt, 2003; 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이는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상담함에 있어서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인지/정서적 스키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Rice & Mirzadeh, 2000; Wei, Heppner, Russell, & Young, 2006; Wei et al., 2004)을 통해 초기 부모와의 관계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애착패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두 변인에 따라 어떤 자연발생적인 집단들이 형성되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분류된 집단들이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난 수십 년간 부적응적 완벽주의(maladaptive perfectionism)가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e.g., Hewitt & Flett, 1991;

Slaney, Rice, Mobley, Trippi, & Ashby, 2001). 일부 학자들(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Slaney, Ashby, & Trippi, 1995)은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는데, 이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타인을 실망시킬 것을 걱정하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한다. 한편, 초기 학자들(e.g., Barrow & Moore, 1983; Hamachek, 1978)은 불안정한 부모-자녀 애착관계로부터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특히 수용에 대한 자녀의 요구에 대해 부모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고 비판적인 기준을 강조할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 설정과 기준 미달에 대한 자기비난(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등 과제 수행과 관련된 측면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했다고 믿고(Hewitt & Flett, 1991) 타인으로부터의 비판이나 거절을 두려워하는(Burns & Beck, 1978)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와 실제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Chang & Rand, 2000; Flett et al., 1995),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선, 서영석, 2009; 이민규, 김근홍, 1998; 이정윤, 조영아, 2001; 장애경, 2006; 최문선, 유제민, 현명호, 2005; Frost et al., 1990; Wei et al., 2006).

한편, 생애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도식

(또는 인지적 표상)은 이후 외부세계에 대한 반응유형 및 관계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e.g., Berman & Sperling, 1994; Bowlby, 1988; Hamilton, 2000). 즉, 초기 애착관계를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시간이 지나고 대상이 바뀌어도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대인관계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초기애착과 관련된 성인기 외부세계 또는 타인 표상을 성인애착이라 칭치하면서, 성인애착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주장 및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불안애착은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 차원을 의미하고, 회피애착은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두 차원 모두 높을 경우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지만, 어느 애착 수준이 높은지에 따라 자신에 대한 지각, 대인관계 패턴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 애착차원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Brennan et al., 1998).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관, 방희정, 조혜자, 2007; Wei, Vogel, Ku, & Zakalik, 2005). 특히,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상의 사소한 위협에 대해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애착대상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노력하고, 회피애착이 강한 사람들은 애착 욕구 자체를 부정하며 최대한 타인과 인지적, 정서적,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직, 오경자, 2009;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또한, 상대적으로 회피애착보다는 불안애착이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 더 강한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et al., 2006; Wei et al., 2005).

이렇듯,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적응 및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두 변인 간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대체로 일관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즉, 애착패턴이 안정적인수록 적응적인 완벽주의성향이 높은 반면(Rice & Mirzadeh, 2000),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유의미한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장애경, 2006; Andersson & Perris, 2000). 또한, 이 두 변인 간 인과적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은 어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든 종속변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에서 성인애착으로 가는 경로와 성인애착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ice & Lopez, 2004; Wei et al., 2003). 이는 두 변인 간 인과적 관련성에 대해 특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Rice와 Lopez(2004)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더라도 좀 더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내담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고 자아존중감을 위협하는 요소에 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유상미, 이승연, 200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더라도 애착패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인지/정서적 자원이 다를 수 있고, 따라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애착 간 인과적 관련성을 탐색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 두 변인을 조합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내담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ewitt, Flynn, Mikail과 Flett(2001) 또한 이와 비슷한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즉, 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어린 시절 부모 또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관계기대 또는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내담자들의 관계패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애착을 조합했을 때 어떤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는지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하위집단들이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은 다양한 변인들을 조합했을 때 동질적인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탐색적인 분석방법으로써, 변인들의 수준에 따라 어떤 집단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Borgen & Barnett, 1987). 본 연구에서는 Brennan 등(1998)의 전통에 따라 성인애착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구분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조합했을 때 어떤 하위집단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수행과 관련된 측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의존, 그

리고 그러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Rice & Lopez, 2004). 이는 완벽주의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학업 등 과업 수행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사회적 자원을 지각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 또는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상담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성인 애착의 하위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에 따라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한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지닌 관계 패턴과 이로 인한 적응 및 관계형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두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다른 조합을 이루는 집단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개입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들의 관계패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상담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Bowlby, 1988),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들은 상담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latt, Zuroff, Bondi, Sanislow, & Pilkonis, 1998). 따라서, 상담자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을 지닌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그들의 애착패턴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관계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치료 성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이러한 집단들이 두 변인과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심리적 특성들(우울, 불안, 사회적 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서중심 대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능감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성인애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고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사회적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allinckrodt & Wei, 2005; Wei et al., 2004). 자아존중감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성인애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Rice와 Lopez(2004)의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고 하더라도 안정된 애착 유형을 지닌 내담자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성인애착의 불안정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단들이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에 과도하게 주의를 집중하거나 또는 회피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우선,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정서중심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lankstein & Dunkley, 2002; Flett, Russo, & Hewitt, 1994),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정서중심 대처를 매개로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et al., 2003). 한편, 성인애착과 정서중심 대처 간 관

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이론적 주장과 실증적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이론가들(Lopez & Brennan, 2000; Rice & Lopez, 2004)은 성인애착패턴이 인지 과정, 정서 조절 및 대인관계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불안애착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표현하거나 그러한 정서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회피애착이 강한 사람들, 즉 다른 사람과 친밀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거리 두기를 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직, 오경자, 2009; Wei et al., 2005). 한편, 안정된 애착 유형을 지닌 대학생들이 보다 적응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대처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서적인 적응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귀선, 정남운, 2003; Brennan et al., 1998; 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1995; Searle & Meara,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이론 및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 중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을 더 많이 사용하고,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을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S대학, Y대학) 재학생 176명(남 98, 여 78)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세($SD = 2.15$)였으며, 참여자들의 전공은 공학계열 100명(56.8%), 교육학 32명(18.2%), 법학 22명(12.5%), 기타전공 22명(13%)이었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83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한 176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실시되었으며,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부적응적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많은 학자들(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 Slaney et al., 2001)은 완벽주의를 과제 수행과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특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척도에 따라 각기 다른 완벽주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수행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과제 수행 관련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의 하위요인인 ‘수행에 대한 의심’과 ‘실수에 대한 염려’, 그리고 Slaney

등(2001)이 개발한 완벽주의 척도(Almost Perfect Scale-Revised: APS-R)의 하위요인인 ‘격차지각’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가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의 하위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사용하였다.

우선, 과제 수행과 관련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FMPS(Frost et al., 1990)와 APS-R(Slaney et al., 2001)을 사용하였다. FMPS는 총 6개의 하위요인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는 실수했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은 특정한 일을 끝마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측정하고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척도 모두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선행연구(Frost et al., 1993; Frost et al., 1990)에서 수행에 대한 의심과 실수에 대한 염려는 자아존중감, 지연행동,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 등(200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실수에 대한 염려가 .89, 수행에 대한 의심이 .7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2와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의 평균값을 측정변인(수행완벽주의)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편, Slaney 등(2001)이 개발한 APS-R은 총 3개의 하위요인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격차(Discrepancy)지각’을 측정하기 위한 12

문항을 사용하였다. 격차지각은 자신의 수행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Salney 등(2001)의 연구에서 격차지각은 실수에 대한 염려($r = .55$), 수행에 대한 의심($r = .62$)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 등(2004)의 연구에서 격차지각의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FMPs(Hewitt & Flett, 1991)의 하위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HFMPs는 3개의 하위척도(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했다고 믿고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의미한다.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맞추기 어렵다"),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 선행연구(고희경, 현명호, 2009; 김민선, 서영석, 2009)에서 내적합치도는 .70-.7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2로 나타났다.

성인 애착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수정된 성인 낭만적 애착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를 김성현(2004)이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성인 낭만적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

다. ECR-R은 Brennan 등(1998)이 제작한 성인 낭만적 애착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를 문항반응이론을 토대로 수정한 것인데,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불안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등이 있으며, 회피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나는 그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 등이 있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차원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각각 .91과 .94로 나타났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불안애착 .89, 회피애착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86, 회피애착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척도(Self-Efficacy Scale: SES)의 하위척도인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대인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에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효능감은 자아강도, 대인관계 유능감,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herer et al., 1982). Mallinckrodt와 Wei(2005)의 연구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6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Global Self-Esteem Scale: G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고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ice와 Lopez(200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정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Skowron과 Friedlander(1998)가 개발한 자기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SI)의 하위요인 중 ‘감정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을 사용하였다. DSI는 총 4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이 중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vity) 척도는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 자극에 대해 감정에 휩싸이거나, 쉽게 감정이 바뀌거나 또는 감정에 압도당할 만큼 과민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내 감정은 때때로 널을 뛰는 것 같다”). 반면,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인 정서경험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너무 강렬할 때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예, “가족한테서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Skowron과 Friedlander(1998)의 연구에서 감정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정서적 단절이 적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김민선과 서영석(2009)이 역번역과정을 거쳐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감정적 반응과 정서적 단절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83-.88과 .79-.84(Skowron & Friedlander, 1998; Wei et al., 200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2와 .76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고통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가 개발한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와 Beck, Emery와 Greenberg(1985)의 벡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BDI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벡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영호(199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한편, BAI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199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Beck, Epstein, Brown와 Steer(1988)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5,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육성필과 김중술(199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우선, 부적응적 완벽주의 3개 하위요인(수행 완벽주의, 격차지각,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불안애착, 회피애착)에 따라 몇 개의 동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절차를 활용하였는데, Wards의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연달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만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즉 대부분의 사례들로부터 많이 이탈된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단들이 사회적 효능감, 자아존중감, 정서중심 대처(감정적 반응, 정서적 단절)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불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성인애착의 두 하위차원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불안애착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행완벽주의, 격차지각, 감정적 반응 및 정서적 단절과는 정적 상관을,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사회적 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피애착은 수행완벽주의, 격차지각, 정서적 단절과는 정적 상관을, 사회적 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감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계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불안애착											
2. 회피애착	.38**										
3. 사회부과적완벽주의	.24**	-.07									
4. 수행완벽주의	.29**	.31**	.36**								
5. 격차지각	.51**	.28**	.31**	.45**							
6. 사회적효능감	.09	-.26**	.02	-.00	-.11						
7. 자아존중감	-.18*	-.39**	-.02	-.27**	-.32**	.22**					
8. 감정적 반응	.42**	-.00	.23**	.20**	.41**	-.05	.04				
9. 정서적 단절	.28**	.31**	.33**	.37**	.47**	-.30**	-.21**	.48**			
10. 우울	.28**	.25**	.21**	.45**	.32**	-.13	-.19*	.41**	.39**		
11. 불안	.30**	.22**	.28**	.47**	.34**	-.16*	-.19*	.36**	.39**	.91**	
M	62.92	54.21	60.57	34.29	45.92	19.37	29.18	40.48	86.15	9.13	6.22
SD	14.94	15.02	7.73	8.59	10.79	3.50	5.52	8.51	9.76	9.91	7.83

주. N = 176. * $p < .05$. ** $p < .01$.

정적 반응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애착의 두 하위차원에 따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의 관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 하위요인들은 사회적 효능감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적 특성 변인들과 부적(자아존중감) 또는 정적(감정적 반응, 정서적 단절, 우울, 불안) 상관을 나타냈다.

군집분석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하위요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수행완벽주의’, ‘격차지각’, 그리고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설정하고,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을 통해 나온 군집화 일정표를 바탕으로 군집의 수를 확인한 결과 3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의 군집 수를 기준으로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실시하였다. K-means 방법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이 확인되었으며, 군집 1은 65명(36.9%), 군집 2는 44명(25.0%), 군집 3은 67명(38.1%)으로 나타났다(표 2).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을 명명하기 위해, 표 2와 그림 1에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평균 = 0, 표준편차 = 1). 군집 1은 수행완벽주의와 격차지각 점수가 세 집단 중 가장 높고, 불안애착이 평균이상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회피애착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

는 비록 수행완벽주의 수준이 군집 1보다는 낮지만 군집 3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아 수행 관련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판단하였고, 회피애착 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수행완벽-회피애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하위요인 모두 평균 이하이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비완벽-안정애착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개의 군집이 부적응적 완벽주의 하위요인 및 성인애착 두 하위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Box의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살펴보고, 그 결과 전체 종속변인에 대한 군집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illai의 트레이스 = .01, $F(10, 340) = 56.13, p < .001$, 부분 $\eta^2 = .62$. 어느 종속변인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종속변인에서 군집 간 차이가 유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F(2, 173) = 3.39, p > .05$, 부분 $\eta^2 = .04$; 수행완벽주의, $F(2, 173) = 11.81, p < .001$, 부분 $\eta^2 = .12$; 격차지각, $F(2, 173) = 9.07, p < .001$, 부분 $\eta^2 = .10$; 불안애착, $F(2, 173) = 132.53, p < .001$, 부분 $\eta^2 = .61$; 회피애착, $F(2, 173) = 166.61, p < .001$, 부분 $\eta^2 = .66$. 각각의 종속변인에 대해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표 2), 군집 1(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행완벽주의, 격차지각, 그리고 불안애착 수준이 높고, 군집 3보다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집 2(수행

표 2. 최종 군집별 중심점

군집 변인	군집1(<i>n</i> = 65)	군집2(<i>n</i> = 44)	군집3(<i>n</i> = 67)	<i>F</i>	Scheffé	
	수행완벽- 불안장애착 집단	수행완벽- 회피애착 집단	비완벽- 안정애착 집단			
완벽 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1.14(63.22)	-0.73(58.55)	-0.41(59.34)	3.39	-
	수행완벽주의	1.02(51.90)	-0.05(45.66)	-0.97(40.28)	11.81	3 < 2 < 1
	격차지각	1.10(38.91)	-0.25(33.14)	-0.85(30.57)	9.07	2, 3 < 1
성인 애착	불안애착	1.15(78.41)	-0.45(55.92)	-0.70(52.49)	132.53	3 < 2 < 1
	회피애착	0.32(60.68)	0.80(67.77)	-1.12(39.04)	166.61	3 < 1 < 2

주. 최종군집별 중심점은 표준화된 점수임: $M = 0$, $SD = 1$. 괄호 안은 비표준화 된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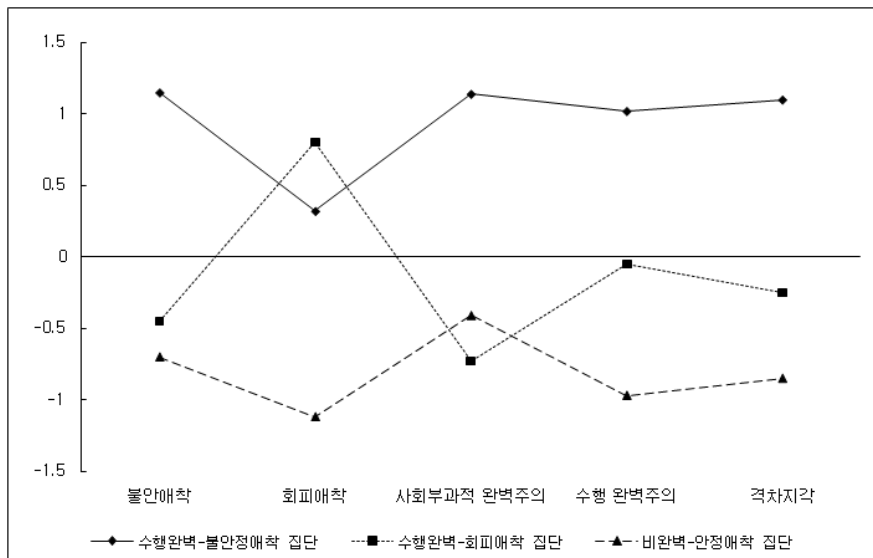


그림 1. 군집프로파일. 표준화된 점수 $M = 0$, $SD = 1$.

완벽-회피애착 집단)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집 3에 비해 수행완벽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군집 3(비완벽-안정애착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행완벽주의, 격차지각, 그리고 두 성인애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집에 따른 심리적 특성 차이 분석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집단이 다양한 심리적 특성(사회적 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적 반응, 정서적 단절, 우울,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Box의 동일성 검증 결과 집단

표 3.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수행완벽- 불안장애 집단 (n = 65)		수행완벽- 회피장애 집단 (n = 44)		비완벽- 안장애 집단 (n = 67)		F(2, 336)	Scheffé
	M	SD	M	SD	M	SD		
사회적 효능감	19.79	3.31	17.55	3.21	20.15	3.49	8.83***	2 < 1, 3
자아존중감	28.19	4.73	27.34	4.94	31.35	5.94	9.54***	1, 2 < 3
감정적 반응	44.19	8.60	38.01	6.70	38.50	8.32	10.99***	2, 3 < 1
정서적 단절	38.41	11.82	38.54	6.93	32.45	7.94	8.56***	3 < 1, 2
우울	12.32	10.48	9.32	11.63	5.91	6.73	7.42***	3 < 1
불안	8.94	8.87	5.55	8.11	4.05	5.56	7.14***	3 < 1

주. N = 176. ***p < .001.

의 공분산행렬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종속변인에 대해 군집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illai의 트레이스 = .33, $F(14, 408) = 5.70, p < .001$, 부분 $\eta^2 = .16$. 어느 종속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효능감, $F(2, 173) = 8.83, p < .001$, 부분 $\eta^2 = .09$; 자아존중감, $F(2, 173) = 9.54, p < .001$, 부분 $\eta^2 = .10$; 감정적 반응, $F(2, 173) = 10.99, p < .001$, 부분 $\eta^2 = .11$; 정서적 단절, $F(2, 173) = 8.56, p < .001$, 부분 $\eta^2 = .09$; 우울, $F(2, 173) = 7.42, p < .001$, 부분 $\eta^2 = .08$; 불안, $F(2, 173) = 7.14, p < .001$, 부분 $\eta^2 = .08$. 다음으로, 각 종속변인별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우선, 사회적 효능감은 수행완벽-회피장애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

감은 비완벽-안장애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았지만 수행완벽-불안장애 집단과 수행완벽-회피장애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중심 대처에서는 수행완벽-불안장애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감정적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행완벽-불안장애 집단과 수행완벽-회피장애 집단 모두 비완벽-안장애 집단에 비해 정서적 단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우울, 불안 모두에서 수행완벽-불안장애 집단이 비완벽-안장애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행완벽-회피장애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우울 및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인관계

패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결합했을 때 두 변인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하위 집단들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 하위요인과 성인애착 두 차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이러한 집단들이 다양한 심리적 특성(사회적 효능감, 자아존중감, 감정적 반응, 정서적 단절, 우울, 불안)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3개의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은 수행과 관련된 완벽주의 성향과 성인애착 특히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행완벽-회피애착 집단’은 수행 관련 완벽주의가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에 비해 낮지만 ‘비완벽-안정애착 집단’ 보다는 높고, 회피애착 수준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비완벽-안정애착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수행 관련 완벽주의뿐만 아니라 성인애착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불안애착 수준이 모두 높은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이 도출된 것은 비록 연구의 목적 및 방향은 다르지만 완벽주의와 애착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매우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완벽주의를 지니고 있고(Rice & Lopez, 2004; Rice & Mirzadeh, 2000; Wei et al., 2004), 지속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타인들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ver & Mikulincer, 2002). 또한 ‘수행완벽-회피애착 집단’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수행 관련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서 동시에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수행과 관련된 완벽주의 성향을 회피라는 대인관계 대처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사람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완벽주의 집단을 적응적, 부적응적, 비완벽주의 집단으로 구분한 선행연구(Rice & Mirzadeh,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적응적 완벽주의 특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두 집단 즉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과 비완벽-안정애착 집단은 각각 부적응적 완벽주의 집단과 비완벽주의 집단에 대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집단은 성인애착을 유형론적(typological) 관점에서 바라본 이론가들(예, Bartholomew & Horowitz, 1991)의 집단 분류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세 집단 중 불안애착 수준이 가장 높고 회피애착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은 몰입형(preoccupied style) 또는 두려움형(fearful style)과 유사하고, 회피애착 수준이 높고 불안애착 수준이 낮은 수행완벽-회피애착 집단은 거부형(dismissing style)과 유사하며, 마지막으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모두 낮은 비완벽-안정애착 집단은 안정형(secure style)과 유사하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조합해서 도출된 집단들은 무선적(random)으로 또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성인애착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주장 및 경험적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적응적 완벽주의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즉 다른 사람

들이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을 비난하는 성향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행 관련 업적이나 학업성취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공통적인 특징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동시에 불안애착 또는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적은 사람들이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불안정 성인애착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장애경, 2006; Andersson & Perris, 2000; Wei et al., 2003)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 하더라도 안정된 애착유형을 지닌 내담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있다는 Rice와 Lopez(200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 경우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낮을 경우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닐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수가 작기 때문에,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서 동시에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존재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 및 심리

적 고통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들 중에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서도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이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집단의 존재유무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집단들이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비완벽-안정애착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사회적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감정적 반응 및 정서적 단절, 그리고 우울,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적으면서 안정된 애착패턴을 지닌 대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정서적 대처는 적게 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수준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감정적 반응, 우울 및 불안수준이 높은 반면, 비완벽-안정애착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정서적 단절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행 관련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면서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며,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수행완벽-불안정애착 집단에서 불안애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감정적 반응을 더 많이 하고(Wei et al., 2005), 불안애착과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많다(Enns

& Cox, 2002; Wei et al., 2004)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수행완벽-불안장애 집단의 사회적 효능감이 비완벽-안장애 집단과 차이가 없고, 수행완벽-회피장애 집단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사회적 효능감이 낮다는 선행연구(e.g., Mallinckrodt & Wei, 2005; Wei et al., 2004)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비록 본 연구결과를 완벽주의 및 성인애착을 독립적인 변인으로 취급하여 사회적 효능감과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닌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이나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의 효능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통적인 견해와는 매우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성인애착을 조합한 결과인지, 아니면 본 연구에 참여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독특한 특성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지닌 관계적 특성을 통해 본 연구결과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 하지만 동시에 타인으로부터의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ver & Mikulincer, 2002; Wei, Russell, Mallinckrodt, & Vogel, 2007). 이렇듯 타인들로부터 승인과 인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관계형성 및 유지와 관련된 기술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발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적 효능감 발달로 이어지는 것

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후속연구를 통해 재차 확인된다면, 상담자는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들이 비록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지라도 관계형성 및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상담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행완벽-회피장애 집단은 세 집단 중 사회적 효능감이 가장 낮고, 자아존중감은 비완벽-안장애 집단에 비해 낮으며, 정서적 단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회적 효능감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이유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회피애착 수준이 높아서일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선행연구(신지옥 & 방희정, 2006)에서도 불안애착보다는 회피애착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착 욕구 자체를 부정하고 최대한 타인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et al., 1998;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결국, 이러한 성향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효능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고 정서적 단절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는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지니고 있고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는 경향이 강하다(Lopez & Brennan, 2000; Rice & Lopez, 2004)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상담자는 ‘수행완벽-불안장애’ 집단의 사회적 효능감이 낮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들은 관계에 대한 외현적 자신감 때문에 상담 초기 상담관계 형성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담이 진행되면서 이들이 지닌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치료적 동맹관계 형성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Melges(1982)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대인관계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성향의 내담자가 상담자를 평가자로 인식한다면, 지속적으로 긴밀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상담자와 치료적 동맹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힘들어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치료적 동맹관계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주의하고, 내담자에게 평가자가 아닌 조력자 및 지지자로서 안전한 상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인관계 지각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을 교정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은 상담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하거나 피하는 대처방식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성향이 상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감정에 몰입하거나 회피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적 대처양식이 상담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함을 인

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대처양식이 내담자의 자기 인식이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좀 더 적응적인 대처양식(예, 문제해결중심 대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담자 그리고 상담관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 관계패턴과 대처양식을 이해하고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수행완벽-회피애착' 성향을 보이는 내담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고 유연한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담자들은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 초기부터 친밀한 상담관계 형성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억압된 정서 또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즉시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할 것을 강조하는 상담 장면에서는 자신의 정서적 경험이나 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상담자가 상담초기부터 내담자와 친밀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한다면, 내담자로 하여금 억압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치료적 예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대안은, 상담 초기에는 이들이 지닌 수행과 관련된 완벽주의 성향에 초점을 두고, 완벽주의 성향이 어떻게 자신에 대한 견해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적인 접근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는 점진적으로 내담자의 관계적인 측면을 함께 다루면서 내담자의 완벽주의적 사고가 관계적

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완벽주의적 성향이 회피적인 대인관계 패턴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오히려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만들고, 결국 낮은 자존감과 높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유발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과거의 애착관계와는 다른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상담자와 형성함으로써 부적응적인 애착패턴이 좀 더 안정적인 패턴으로 바뀔 수 있는 교정적 정서경험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수행완벽-회피애착’ 성향이 강한 내담자들에게는 보다 조심스럽고 세밀하고 유연한 접근을 사용함으로써 상담초반에 발생할 수 있는 조기탈락(dropout)을 방지하면서 상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능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군집분석이 표본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령, 교육배경 등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처럼 세 개 군집이 도출되는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지 않았는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를 지각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을 토대로 도출된 하위집단들이 대인관계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측정함에 있어서 부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애착패턴과의 조합을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보다 적응적인 완벽주의 특성을 포함시켜 애착패턴과의 조합을 살펴보고, 이 때 어떤 동질적인 하위집단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희경, 현명호 (2009).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양상 간 관계에서의 인지적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 9-116.
- 권석만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Queensland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의 관계: 정서중심 대처와 지각된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 427-446.
- 김병직, 오경자 (2009).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반추와 정서 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 357-375.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471-490.
- 신지옥, 방희정 (2006). 애착과 대인관계 유능성:

- 애착 회피와 애착 불안의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 유상미, 이승연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 119-136.
- 육성필, 김중술 (1997).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임상적 연구: 환자군과 비환자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185-197.
- 이귀선, 정남운 (2003).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 779-793.
- 이민규, 김근홍 (1998).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 효능감이 우울과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211-222.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정윤, 조영아 (2001). 사회공포증과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3, 93-104.
- 장애경 (200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수준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문선, 유제민, 현명호 (2005). 평가 염려 및 개인 기준적 완벽주의와 우울간의 관계: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 1-15.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ndersson, P., & Perris, C. (2000). Perceptions of parental rearing and dysfunctional attitudes: The link between early experiences and individual vulnerability.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54, 405-409.
- Barrow, J. C., & Moore, C. A. (1983). Group interventions with perfectionistic think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612-615.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897.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Sperling, M. B. Berman, W. H.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3-28). New York: Guilford Press.
- Blankstein, K. R., &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 modeling strate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285-3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Zuroff, D. C., Bondi, C. M., Sanislow, C. A., & Pilkonis, P. (1998). When and how perfectionism impedes the brief treatment of depression: Further analyse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423-428.
- Borgen, F. H., & Barnett, D. C. (1987). Applying cluste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56-468.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s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urns, D. D., & Beck, A. T. (1978).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of mood disorders. In J. E. Foreyt & D. E. Rathjen (Eds.), *Cognitive behavior therapy* (pp.109-134). New York: Plenum Press.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29-137.
- Enns, M. W., & Cox, B. (2002). The nature and assessment of perfectionism: A critic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33-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ett, G. L., Russo, F. A., & Hewitt, P. L.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constructive thinking as a coping respons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12*, 163-179.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1995). Perfectionism,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a distress model. *Current Psychology, 14*, 112-137.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G.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L.,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19-126.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Hair, J. H.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Grimm, L. G. and Yarnold, P. R. (Ed.),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 15, 27-33.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 690-694.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ewitt, P. L., Flynn, C. A., Mikail, S. F., & Flett, G. L. (2001). Perfectionism, interpersonal stress problems, and depression in psychodynamic/interpersonal group treatment [Abstract]. *Canadian Psychology, 42*, 141.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interpersonal problem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58-367.
- Melges, F. T. (1982). Emotion spirals and interpersonal expectations. In F. T. Melges (Ed.), *Times and the inner future: A temporal approach to psychiatric disorders* (pp.219-238). New York: Wiley.
- Mikulincer, M. (1995). Attachment style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203-1215.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Rice, K. G., & Lopez, F. G.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118-128.
- Rice, K. G., & Mirzade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38-25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ar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147-158.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246.
- Slaney, R. B., Ashby, J. S., & Trippi, J. (1995).

- Perfectionism: Its measurement and career releva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279-297.
- Slaney, R. B., Rice, K. G., Mobley, M., Trippi, J., & Ashby, J. S.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 130-145.
- Wei, M., Heppner, P. P., & Mallinckrodt, B. (2003). Perceived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38-447.
- Wei, M., Heppner, P. P., Russell, D. W., & Young, S. K. (2006).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ineffective coping as mediators between attachment and future depression: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67-79.
- Wei, M., Mallinckrodt, B., Russell, D. W., & Abraham, T. W.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attachment and negat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01-212.
- Wei, M., Russell, D. W., Mallinckrodt, B., & Vogel, D. L. (2007).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ECR)-short form: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2), 187-204.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원고접수일 : 2010. 01. 26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3. 19

게재결정일 : 2010. 05. 15

Clustering by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and Group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Attributes among College Students

Minsun Kim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natural grouping of people in terms of sub-factors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two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Results from a cluster analysis with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N = 176$) indicated the presence of three clusters. “Performance perfectionism-insecure attachment group” was characterized by being high on performance perfectionism and two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It scored highest on social self-efficacy, emotion-focused coping, depression, and anxiety as compared to the other two groups, while being low on self-esteem. By contrast, “performance perfectionism-avoidant attachment group” was relatively high on performance perfectionism, scoring highest on avoidant attachment. It scored lowest on social self-efficacy but highest on emotional cutoff, while being relatively low on self-esteem. Finally, “nonperfectionism-secure attachment group” scored lowest o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It scored high on social self-efficacy, highest on self-esteem, and relatively low on emotion-focused coping.

Key words : maladaptive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cluster analysis, psychological attributes, psychological distress